

《靈樞·行鍼篇》에 對한 研究*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魯鎮宇·陸相元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琴垞樹

I. 緒論	200
II. 研究方法 및 資料	201
1. 研究方法	201
III. 本 論	202
第一節. 氣血의 不同으로 인한 6종의 刺鍼反應	202
第二節. 重陽之人的 刺鍼反應	204
第三節. 五種의 刺鍼反應	207
IV. 意 譯	210
V. 結 語	212
參 考 文 獻	212
參 考 辭 典	213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靈樞行鍼篇》에 對한 研究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魯鎮宇 陸相元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琴桐樹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bstract

A Study on the Haeng Chym Pyun(行鍼篇) of the Young Chu(靈樞)

The Haeng Chym(行鍼) which is the sixty seventh chapter of the Young Chu(靈樞), predominantly explicates the six kinds of needling reactions.

The principle ideas of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Haeng Chy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n this thesis.

1st part: It shows that the six kinds of reactions occur from the excess and deficiency of yin-yang(陰陽) which is due to each different constitution(體質) in the acupuncture.

2nd part: It explains the excessive visceral-qi(臟氣) which is due to congenital constitution and the needling reaction which appears among the man of overabundant yang(重陽之人). It shows needling reaction of the man who has a little yin among the man of overabundant yang.

3rd part: It explains the quick and slow of the reaction which occurred in the acupuncture, the presence of reaction by the times of acupuncture, abnormal rising of qi, bad needling reaction in the acupuncture and the side effect by frequent acupuncture.

Key words: Haeng Chym, constitution, needling reaction

1. 緒論

「行鍼」은 《靈樞》 第六十七에, 《太素》에는 卷二十三 「量氣刺」에, 《甲乙經》에는 卷一第十 六에, 《類經》에는 卷二十 「鍼刺類行鍼氣血六不 同」으로 나뉘어 編述되어 있다.

本篇을 三節로 나눌 수 있는데 本篇의 주요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第一節에서는 사람의 體質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陰陽之氣가 偏盛偏衰한 차 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刺鍼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논하였고, 第二節에서 는 陽이 偏盛한 重陽之人의 刺鍼時 반응과 체질적 특성 및 이로 인한 有餘한 臟氣에 대해 언급하였 으며, 重陽之人 가운데에 陰이 약간 있는 者의 刺 鍼 반응에 대하여 논하였고, 第三節에서는 刺鍼할 때에 나타나는 刺鍼反應의 빠르고 느림과 刺鍼의

많고 적음에 따른 반응의 有無와 刺鍼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불량한 반응인 氣逆과 여러 차례의 刺鍼으로 인하여 病이 더욱 깊해지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本篇 첫머리에 黃帝가 六種의 不同한 반응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末尾에서 두 질문을 합하여 한 가지로 대답한 것으로 볼 때,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혹 缺文이나 錯簡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다. 또한 末尾에서 鍼刺할 때 醫師의 과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後學에게 깊이 경계하여 깨우치게 하는 바이며, 刺鍼 操作의 정확도가 治療效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논술한 本篇은 鍼治療時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문장이 생략된 곳이 있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못하여 바뀐 글자도 많아 본래의 취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諸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본 뜻에 합당한 의미를 밝혀내어 다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본 篇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내용별로 三節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으로 연구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引》과 張介賓의 《類經》과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

》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三節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전래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문헌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비교 참조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풀과 訓을 선택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9종 研究資料의 註釋들 같은 내용별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異見의 대상이 되는 註를 국역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각주처리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문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고찰에서 校正한 내용과 較註에서 확정한 註釋의 내용을 따라 함축된 의미까지도 敷衍하여 해석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각종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등이며, 脚註는 '1), 2), 3), 4)……'의 일련번호로 표기하였다.

2. 研究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1	靈樞校注語譯/ 靈樞經校釋	日本田中清 左衛門刻本 日刻本
2	黃帝內經太素	太素
3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4	類經	類經
5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 號	註 釋 家	時 代	書 目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 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6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 波
7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譯 解
8	廓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 譯
9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 釋

Ⅲ. 本 論

第一節. 血氣의 不同으로 인한 6種의 刺鍼反應

【原文】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九鍼於夫子하야 而行之於百姓¹⁾할새 百姓之血氣²⁾가 各不同形하야 或神動而氣先鍼行³⁾하고 或氣與鍼相逢하고 或鍼已出⁴⁾이어늘 氣獨行하고 或數刺⁵⁾라야 乃知하고 或發鍼而氣逆하고 或數刺病益劇⁶⁾⁽¹⁾하야 凡此六者가 各不同形⁷⁾하니 願聞其方하노이다

【校 勘】

1) 行之於百姓: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 是 '行之百姓'으로 되어 있다.

2) 百姓之血氣: 《張馬合本》에는 '百姓之氣血'로 되어 있다.

3) 或神動而氣先鍼行: 《語譯》에는 “鍼자가 衍文이 의심되니,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쳐야 아래의 '故神動而氣先行'과 운율이 맞는다.”고 하였다.

다.

4) 或鍼已出: 《語譯》과 《校釋》에는 “모두 '已出' 다음에 '而'자를 넣어서 '或鍼已出而'로 고쳐야 아래의 '鍼已出而氣獨行者'와 운율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5) 或數刺: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或數刺之'로 되어 있다.

6) 或數刺病益劇: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或數刺病益甚'으로 되어 있다.

7) 各不同形: 《語譯》에는 “《張注本》과 楊注에 의거하여 '各不同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字句解】

(1) 劇: 甚也, 심할 극.

【較 註】

(1) 余聞九鍼於夫子而行之於百姓 百姓之血氣 各不同形 或神動而氣先鍼行 或氣與鍼相逢 或鍼已出氣獨行 或數刺乃知 或發鍼而氣逆 或數刺病益劇 凡此六者 各不同形 願聞其方:

楊은 “鍼法은 調氣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는 氣의 行함을 묻은 것이다.”¹⁾고 하였고, 馬景岳은 “鍼치료를 받는 사람에는 이러한 여섯가지의 차이점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²⁾고 하였고, 張은 “이것은 前章을 이어서 陰陽之人을 刺鍼할 때에 鍼을 行함이 같지 않음을 論한 것이다. 五音之人은 陰이 많고 左右太少之人은 陽이 많다. 百姓은 天下의 大衆이다. 天地의 사이와 六畝의 안는 五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람도 또한 이에 相應한다. '百姓之血氣各不同形'은 몸의 血氣에 많고 적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六이라는 것은 重陽之人과 陽中有陰之人과 陰陽和平之人과 多陰之

1) ●楊: 夫爲鍼之法은 以調氣爲本이라 故로 此六者는 問氣之行也라

2) 馬: 此는 帝以受鍼之人에 有六者之異 而問之也라 ●景岳: 言受鍼之人에 有此六者之異라

人과 陰中有陽之人과 粗工이 失敗한 경우를 말한다.³⁾”고 하였고, 丹波는 “下文에서 ‘鍼入而氣逆’이라 했으니, 發鍼은 곧 鍼놓음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고 하였고, 《語譯》에서 “或鍼與氣相逢은 刺鍼한 뒤에 鍼感이 鍼을 따라 적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氣逆은 鍼感이 느낌을 가리킨 것이다. 《素問通平虛實論》의 王注에 ‘逆은 滯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劇은 심각함이다. 《漢書楊雄傳上》의 顏注에서 鄭氏가 ‘劇은 甚함이다.’고 한 것을 인용했고, 《甲乙》에는 ‘劇이 ‘甚’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注釋文으로써 正文을 고친 것 같다. 方은 道理다. 《廣雅釋詁二》에 ‘方은 義理이다.’고 했다.”⁵⁾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1. ‘或神動而氣先鍼行’에 대하여 《語譯》에는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제 2절에서 岐伯의 대답에 ‘神動而氣先行’이란 구절이 있음을 살펴볼 때 ‘鍼’字가 衍文이므로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2. ‘或鍼已出’에 대하여 《語譯》·《校釋》에서 ‘或鍼已出而’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고, 下文에 ‘或鍼已出而氣獨行’의 句가 있어서 文章 構成上 ‘而’字를 補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而’字를

挿入하지 않아도 文意를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古典의 原文은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各不同形’에 대하여 《語譯》에서 《張注本》과 楊氏의 所據本에 의거하여 ‘各不同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形’字를 ‘行’字로 바꾸면 文意가 確然해지지만, ‘形’字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뜻이 있으므로 文章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原文대로 두는 것이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1. ‘發鍼’에 대하여 丹波는 下鍼의 뜻이라고 했는데, 3장에서 다시 ‘鍼入而氣逆’이라고 묻는 문장이 있고, ‘發鍼’을 拔鍼의 뜻으로 보면 치료가 끝난 후에 氣逆이 발생하는 의미라서 상하 문장에서는 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丹波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본다.

2. ‘氣逆’에 대하여 《語譯》에서는 鍼感이 느린 것이라고 하여 앞의 ‘或氣與鍼相逢’에서 氣感이 빠르게 온다는 말과 대조적인 의미로 보았으나, 氣機가 逆行되면 鍼感이 느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鍼感이 느리다고 보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氣의 운행이 逆行하여 여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文意上 더 적합하다고 본다.

3. ‘劇’에 대하여 景岳과 《語譯》 등은 病이 甚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景岳 등과 같이 病이 兪중해지고 甚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4. ‘六’에 대하여 張志聰은 重陽之人, 陽中有陰之人, 陰陽和平之人, 多陰之人, 陰中有陽之人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체질, 그리고 醫者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더하여 ‘六’을 注解하였는데, 志聰과 같이 결과론 적으로 해석하여도 文意上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原文에 確實히 여섯 가지의 刺鍼反應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으므로 ‘六’을 原文의 여

3) 張: 此는 承前章하야 論刺陰陽之人而行鍼之不同也라 夫五音之人은 多陰하고 左右太少之人은 多陽이라 百姓者는 天下之大衆이라 蓋天地之間과 六合之內는 不離乎五요 而人亦應之라 百姓之血氣各不同形者는 謂形中之血氣有盛有少也라 六者는 謂重陽之人과 陽中有陰之人과 陰陽和平之人과 多陰之人과 陰中有陽之人과 及粗工之所敗也라

4) 丹波: 下文에 云鍼入而氣逆이라하니 乃知發鍼은 卽下鍼之謂라

5) 語譯: 或鍼與氣相逢은 是指鍼刺後에 鍼感隨鍼適時而至라 氣逆은 指鍼感遲라 素問通平虛實論王注에 逆은 謂滯也라 하니라 劇은 嚴重이라 漢書楊雄傳上顏注에 引鄭氏하야 劇은 甚也라하고 甲乙에 作甚이나 似以注文改正文이라 方은 道理라 廣雅釋詁二에 方은 義也라하니라

섯 가지 情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直譯】

黃帝가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九鍼을 선생님에게 듣고서 百姓에게 施術해 보니 百姓의 血氣가 각기 형상이 같지 아니하여 혹 神이 움직여 氣가 鍼보다 빨리 운행하고, 혹 氣와 鍼이相逢하여 동시에 반응을 보이고, 혹 이미 拔鍼하였거늘 氣가 홀로 운행하여 반응을 보이고, 혹 여러 번 刺鍼하여야 비로소 반응함을 알고, 혹 刺鍼하면 氣가 逆行하고, 혹 여러 번 刺鍼하였을 때에 病이 더욱 甚해져서 무릇 이 여섯 가지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 같지 않으니, 원하건대 그 理致를 듣고 싶습니다.

第二節. 重陽之人의 刺鍼反應

【原文】

岐伯이 曰 重陽之人¹⁾은 其神易動하여 其氣易往也니이다

黃帝曰 何謂重陽之人이니잇고

岐伯曰 重陽之人은 矯矯⁽¹⁾高高⁽²⁾하며 言語善疾⁽³⁾하며 舉足善高하며 心肺之藏氣有餘하고 陽氣滑盛而揚이라 故로 神動而氣先行하니이다

黃帝曰 重陽之人而神不先行者는 何也니잇고

岐伯이 曰 此人은 頗有陰者也⁽⁴⁾일새니이다

黃帝曰 何以知其頗有陰也니잇고

岐伯이 曰 多陽者多喜하고 多陰者多怒어늘 數怒者易解 故로 曰頗有陰이요 其陰陽之離合이 難⁽⁵⁾이라 故로 其神不能先行也⁽⁶⁾니이다

【校勘】

1) 重陽之人: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重陽之盛人'으로 되어 있다.

2) 矯矯高高: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矯矯蒿蒿'로,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矯矯蒿蒿'로 되어 있는데, 《語譯》에는 《甲乙》과 같이

'矯矯蒿蒿'로, 《校釋》에는 '高高'를 '蒿蒿'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3) 舉足善高: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舉足喜高'로 되어 있다.

4) 此人頗有陰者也: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此人頗有陰者'로 되어 있다.

5) 其陰陽之離合難: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其陰陽之合離'으로 되어 있다.

6) 其神不能先行也: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其神不能先行'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矯矯(학학): 《譯解》에서는 "矯矯은 火熱이 熾盛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火의 熱한 뜻을 본떠서 형용한 것이다."고 하였다.

(2) 高高(고고): 《譯解》에서 "高高는 비굴하지 않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고 하였다.

【較註】

(1) 重陽之人 其神易動 其氣易往也 重陽之人 矯矯高高 言語善疾 舉足善高 心肺之藏氣有餘 陽氣滑盛而揚 故神動而氣先行:

楊은 "重陽之人은 陽이 有餘함을 말한 것이다. 矯矯蒿蒿는 그 사람이 소탕하고 황홀함을 말한 것이다. 五臟의 陰陽은 心肺가 陽이고 肝脾腎이 陰이므로 心肺가 有餘하면 陽이 접치게 된다. 重陽之人이 神이 움직이자마자 氣가 바로 운행하는 것은 陽氣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鍼을 잡고 놓으려는 것만 봐도 神이 움직이고 氣가 곧바로 운행하니, 鍼이 들어가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사람은 미약한 刺戟을 주기가 쉽다."⁶⁾고 하였고, 馬景岳張黃《譯解》에서 "이것은 윗 글을 이어 神

6) ◎楊: 重陽之人은 謂陽有餘也라 矯矯蒿蒿는 言其人疏悅也라 五藏陰陽者는 心肺爲陽이오 肝脾腎爲陰 故로 心肺有餘爲重陽也라 重陽之人이 其神機動하고 其氣卽行은 以陽氣多也로 故로 見持鍼欲刺하면 神動하고 其氣卽行하니 不待鍼入이라도 其人與之刺微爲易也라

이 움직이고 氣가 鍼보다 먼저 行하는 者는 반드시 그 사람이 重陽之人임을 말한 것이다. 重陽之人이 神이 쉽게 움직이고 氣가 쉽게 왕래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바로 熇熇하여 上炎하는 氣勢가 있으며, 高高하여 비굴한 마음이 없으며, 언어는 아주 급하며, 걸을 때 다리를 드는 것이 매우 높으며, 그 心肺가 상부에 있어서 臟氣가 有餘하고 陽氣는 衛氣이므로, 氣가 매끄럽고 盛하며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刺鍼할 때에 그 神이 쉽게 움직이고 氣가 鍼보다 앞서서 行하는 것이다.”⁷⁾고 하였고, 《語譯》·《校釋》에서 “往은 이른다는 뜻이다. 《廣雅釋詁》에 ‘往은 쫓이다.’고 했다. 熇熇高高는 여기서 陽氣가 熾盛한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揚은 흩어진다는 뜻이다. 《周易》 夫卦에 ‘揚于王庭’이라 하였는데, 鄭注에 ‘揚은 越(달아남)이다.’고 했으니, 越字는 散과 같은 뜻이다.”⁸⁾고 하였다.

- 7) 馬: 此는 承上文하야 而言神動而氣先鍼以行者는 必其爲重陽之人也라 夫重陽之人이 神易動而氣易往者는 何哉오 正以熇熇而有上炎之勢하며 高高而無卑屈之心하며 以言語則善急하며 以舉足則甚高하며 其心肺在上之藏氣는 更爲有餘요 而陽氣者는 衛氣也니 滑盛而揚이라 故로 用鍼之際에 其神易動而氣先鍼而行也라 ○景岳: 重陽之人은 陽勝者也라 熇熇은 明盛貌라 高高는 不屈之謂라 心肺爲二陽之藏이요 陽氣滑盛而揚이라 故로 神易於動하고 氣先鍼而行也라 ○張: 此는 言重陽之人의 神氣之易行也라 夫五藏은 內合五行하고 外合五音하며 三陰之所主也라 心肺는 居上爲陽이요 肝腎脾는 居下爲陰이니 陰中有陽也라 重陽之人者는 手足左右太少之三陽과 及心肺之藏氣有餘者也니 熇熇高高는 乃手三陽之在上也요 言語善疾은 陰中之陽在中也요 舉足善高는 足三陽之在下也라 心藏神하고 肺主氣하니 心肺之藏氣有餘하고 陽氣滑盛而揚이라 故로 神動而氣先行也라 ○黃: 熇熇高高는 氣高而揚也라 ○譯解: 重陽之人은 是指偏重於陽分의 사람이라 心肺는 都屬於陽臟이어서 心藏神하고 肺主氣하니 心肺之藏氣有餘는 就是形容心神壯旺하고 肺氣充足이라 所以로 神氣易於衝動하고 鍼刺의 敏感性 很強이라
- 8) 語譯: 重陽之人은 謂陽有餘라 廣雅釋詁一에 往은 至也라 하니라 ●校釋: 往은 至의 意思라 廣雅釋詁一에 往은 至也라 하니라 熇熇高高는 這裏形容陽氣熾盛의 樣子라 揚은 散

[2] 重陽之人而神不先行者何也 此人頗有陰者也 何以知其頗有陰也 多陽者多喜 多陰者多怒 數怒者易解 故曰頗有陰 其陰陽之離合難 故其神不能先行也:

楊馬·景岳黃《譯解》에는 “光明하고 밝음은 陽의 德이요 沈滯하고 抑鬱함은 陰의 性질이니, 陽이 많으면 기뻐하길 잘하고, 陰이 많으면 성을 자주 낸다. 그러나 자주 성내는 것은 약간 陰이 있기 때문이고, 쉽게 풀리는 것은 陽에 근본하기 때문이다. 陽 가운데에 陰이 있으면 陽이 陰의 遏매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離合이 어려워 神이 먼저 行하지 못하는 것이다.”⁹⁾고 하였고, 張은 “心은 陽中の 太陽이요 肝은 陰中の 少陽이며, 心은 喜를 주관하고 肝은 怒를 주관하며, 心은 神을 간직하고 肝은 魂을 간직하는데 魂은 神을 따라 왕래한다. 神이 움직이고 氣가 먼저 行한다는 것은 神과 魂이 서로 떨어진 것이고, 陽이 많은데 陰이 약간 있다는 것은 陰陽이 서로 습한 것이다. 陰陽이 떨어지고 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神과 魂이 습하게 되면 그 神이 먼저 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 意思라 易夫에 揚于王庭이라한데 鄭注에 揚은 越也라 하니 越字는 與散으로 同義라

- 9) 楊: 自有重陽하면 要待鍼入에 其氣方行 故로 須問之라 欲知重陽仍有陰者인댄 候之면 可知라 但人多陽者는 其心多喜하고 多陰者는 多怒하니 仍有數怒易解는 即是重陽有陰人也라 重陽有陰人은 其氣不得先鍼行이라 ○馬: 然이나 有重陽之人而神不先行者는 陽中頗有陰也라 凡多陽之人은 必多喜하고 多陰之人은 必多怒하니 惟此重陽之人而怒亦數有로대 但比重陰之人이면 則易解耳니 故로 曰頗有陰也라 蓋以陽中有陰則陽爲陰滯니 初雖鍼入而與陽合하나 又因陰滯而復相離라 其神氣不能易動 而先鍼以行也는 以此라 ●景岳: 光明爽朗은 陽之德也요 沈滯抑鬱은 陰之性也니 故로 多陽則多喜하고 多陰則多怒라 然이나 數怒者는 頗有陰也요 易解者는 本乎陽也라 陽中有陰하면 未免陽爲陰累 故로 其離合難而神不能先行也라 ○黃: 數怒而易解는 數怒而易消也라 易解는 是其陽多요 數怒는 是其有陰 故로 曰頗有陰也라 ○譯解: 陰陽之離合難은 是指陽中有陰이나 陰陽不平衡하야 氣血在全身運行에 離合出入也 不完全正常하니 所以로 敏感性比較弱이라

上文에서 '氣先行'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神不能先行'이라 했는데, 대개 氣가 行하면 神이 行하고 神이 行하면 氣가 行하는 것이니 神과 氣가 서로 따라다닌다. 무릇 鍼을 놓는 사람은 神을 얻고 氣를 取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나, 그러나 神은 쉽게 움직이려함이 있고 氣는 쉽게 왕래하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刺鍼하였을 때 病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도리어 그 神과 氣가 손상된 것이다. 仇汝霖이 '喜는 心의 志요, 怒는 肝의 志다. 자주 성내는 者가 쉽게 풀리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성내고 쉽게 풀어짐을 말한 것이니, 重陽之人에 약간 陰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陰이 많은 者가 자주 성을 내지만, 이것은 陽 가운데에 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성내고 또 쉽게 풀어지는 것이다.'고 했다.¹⁰⁾고 하였고, 丹波는 "陰陽之離合難"은 諸說이 각기 다른데, 누가 옳은 지를 알지 못하겠다. 아마 여기서는 《陰陽離合論》의 離合이므로 곧 開闔樞의 의미일 것이다.¹¹⁾고 하였고, 《語譯》에서 "頗는 조금 적다는 것이다. 《廣雅釋詁三》에 '頗는 少이다.'라고 했다.¹²⁾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1. '矯矯高高'에 對하여 《語譯》·《校釋》에서

10) 張: 心爲陽中之太陽이요 肝爲陰中之少陽이며 心主喜하고 肝主怒하며 心藏神하고 肝藏魂하니 魂은 隨神以往來者也라 神動而氣先行者는 神魂之相離也요 重陽而頗有陰者는 陰陽之相合也라 陰陽之離合難 故로 神與魂合則其神이 不能先行矣라 上文에 曰氣先行이라하고 此則曰神不能先行이라하니 蓋氣行則神行하고 神行則氣行하니 神氣之相隨也라 夫行鍼者는 貴在得神取氣나 然而神有易動하고 氣有易住하니 是以로 數刺而病益甚者는 反傷其神氣也라 仇汝霖이 曰喜爲心志요 怒爲肝志라 數怒者易解는 言其人易怒而易解者니 重陽之人에 頗有陰也일새라 蓋多陰者多怒하니 此는 陽中之陰 故로 易怒而易解也라
 11) 丹波: 陰陽之離合難은 諸說各異하니 未知孰是라 蓋此는 陰陽離合論之離合이니 乃開闔樞之義라
 12) 語譯: 頗는 略微라 廣雅釋詁三에 頗는 少也라하니라

는 '蒿蒿'는 氣蒸하여 나오는 모양으로 氣盛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여 原文대로 '高高'로 하면 文義가 통하기 어려우므로 '高高'를 '蒿蒿'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諸家들이 '高高'에 대하여 卑屈한 마음이 없는 모양을 형용한 것으로 풀이하였고, 《語譯》·《校釋》의 글자를 바꾸어서 氣盛함을 형용한 글자로 본다면 앞의 '矯矯'와 형용하는 것이 중복되므로 原文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較註에 對한 考察〕

1. '往'에 대하여 《校釋》 등에서 至의 뜻이라고 했는데, 文意上 '往'을 왕래함 혹은 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校釋》 등과 같이 刺鍼하여 氣가 이른다는 뜻으로 보아야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2. '矯矯高高'에 대하여 馬蒔 등은 陽氣가 有餘하여 火熱이 熾盛하고 卑屈한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注解하였고, 景岳은 明盛하고 不屈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黃元御는 '氣高而揚'이라고 했는데, 諸家들이 모두 비슷한 뜻으로 注釋하였으나, '矯矯'은 重陽之人이 陽多陰少하여 陽熱이 盛하여 氣勢가 上行하고 熾盛한 모양을 형용한 것이고, '高高'는 馬蒔·景岳과 같이 卑屈한 마음이 없음을 형용한 것으로 보아야 重陽之人의 의미와 마음을 나누어 형용한 것이 되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본다.

3. '揚'에 대하여 《校釋》에서 散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陽의 屬性 중 흩어진다는 의미보다는 陽氣가 浮越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4. '頗'에 대하여 《語譯》에서 조금, 적음이라고 했는데, 原文을 유추해 볼 때 重陽之人이 원래 多陽한 體質이지만, 重陽之人 가운데에도 또 陰이 좀더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頗'는 앞 節의 重陽之

人보다 조금 더 많은 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直譯】

岐伯이 대답하기를, 重陽之人은 神이 쉽게 激動하고, 氣가 쉽게 이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重陽之人이라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重陽之人은 矯矯하고 高高하며, 말이 매우 빠르며, 걸을 때 다리를 높이 드는데, 이 사람은 心과 肺의 臟氣가 有餘하고 陽氣가 滑利하고 充盛하여 激揚하므로, 神이 激動하고 氣가 먼저 行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重陽之人인데, 神이 먼저 行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그러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약간 陰이 있는 者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陰이 약간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陽이 많은 者는 기뻐하길 잘하고, 陰이 많은 者는 성내길 잘하는데, 자주 성내는 者가 쉽게 풀이므로 약간 陰이 있다고 한 것이니, 그 陰陽이 離合하기 어려우므로 神이 먼저 行할 수 없습니다.

第三節. 五種의 刺鍼反應

【原文】

黃帝曰 其氣與鍼相逢은 奈何니잇고

岐伯이 曰 陰陽和調而血氣淖澤⁽¹⁾滑利 故⁽¹⁾로 鍼入而氣出疾而相逢也니이다

黃帝曰 鍼已出而氣獨行者⁽²⁾는 何氣使然이니잇고

岐伯이 曰 其陰氣多而陽氣少⁽³⁾하야 陰氣沈而陽氣浮者 內藏⁽⁴⁾이라 故로 鍼已出⁽⁵⁾이어늘 氣乃隨其後 故로 獨行也니이다

黃帝曰 數刺乃知⁽⁶⁾는 何氣使然이니잇고

岐伯이 曰 此人之多陰而少陽⁽⁷⁾하야 其氣沈而氣往難⁽⁸⁾ 故로 數刺라야 乃知也⁽⁹⁾니이다

黃帝曰 鍼入而氣逆者⁽¹⁰⁾는 何氣使然이니잇고

岐伯이 曰 其氣逆與其數刺病益甚者는 非陰陽之氣⁽¹¹⁾와 浮沈之勢也니 此는 皆粗之所敗⁽¹²⁾어나 工之所失이요 其形氣無過焉⁽¹³⁾이니이다

【校勘】

1) 陰陽和調而血氣淖澤滑利故: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陰陽和調而血氣淖澤滑利'로,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陰陽和調者血氣淖澤滑利故'로, 《張馬合本》에는 '陰陽和調而血氣淖澤滑利故'로 되어 있다.

2) 鍼已出而氣獨行者: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鍼以出而氣獨行者'로 되어 있다.

3) 其陰氣多而陽氣少: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其陰多而陽少'로 되어 있는데, 《語譯》·《校釋》에는 모두 '其陰多而陽少'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4)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陰氣沈而陽氣浮沈者藏'으로, 《張馬合本》에는 '陰氣沈而陽氣浮沈者內藏'으로 되어 있는데, 《校釋》에는 '陰氣沈而陽氣浮沈者內藏'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5) 鍼已出: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鍼以出'로 되어 있다.

6) 數刺乃知: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數刺乃知者'로 되어 있다.

7) 此人之多陰而少陽: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此人多陰而少陽'으로,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其多陰而少陽者'로 되어 있다.

8) 其氣沈而氣往難: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其氣沈而氣注難'으로 되어 있다.

9) 數刺乃知也: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數刺之乃知'로 되어 있다.

10) 鍼入而氣逆者: 《太素》 卷二十三 「量氣刺」에는 '鍼入而逆者'로 되어 있고, 丹波는 "上下文例를 보면 이 아래에 '其數刺病益甚者' 7자가 빠진 것 같다."고 하였다.

11) 非陰陽之氣: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非陰陽之氣也'로 되어 있다.

12) 粗之所敗: 《類經》 卷二十 「鍼刺類」에는 '蠱之所敗'로 되어 있다.

13) 其形氣無過焉: 《甲乙》 卷一第十六에는 '其形氣無過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淖澤(노택): 《語譯》에서 "淖澤은 濕潤함이다. 《素問經絡論》 王注에 '淖는 濕이다. 澤은 潤液이다.'고 했다."고 하였다.

【較註】

[1] 其氣與鍼相逢奈何 陰陽和調而血氣淖澤滑利故鍼入而氣出 疾而相逢也:

楊馬景岳張은 "이것은 위 글을 이어서 鍼을 받아들이는 氣가 鍼과 더불어相逢한다는 것은 그 氣가 반응을 나타낼이 빠르기 때문에相逢하는 것임을 말하였다. 바로 이런 사람은 陰陽의 各經이 서로 調和를 이루어 血氣가 潤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¹³⁾"고 하였다.

[2] 鍼已出而氣獨行者 何氣使然 其陰氣多而陽氣少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 故鍼已出 氣乃隨其後故獨行也:

楊景岳張은 "徐振公이 '이것은 陰이 많은 사람은 鍼이 이미 나왔으나 陰氣만 홀로 行함을 말한

것이다.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者는 陰氣는 沈下하고 陽氣는 浮上하여 陰陽이 서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鍼이 이미 나오게 되면 微微한 陽氣가 鍼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오고 陰氣는 홀로 안에서 行하는데, 이는 陰陽이 화합하지 못하여 서로 분담하여 지킬 수 없어서 微微한 陽氣가 쉽게 이탈한 것이다.'고 했다.¹⁴⁾"고 하였고, 馬는 "이것은 鍼이 이미 나왔으나 氣만 홀로 行하는 것은 바로 陰氣가 많아서 안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鍼이 비록 나왔으나 氣는 뒤쫓아 홀로 行함을 말한 것이다. 陰氣는 營氣, 陽氣는 衛氣를 말하니 下文도 마찬가지다.¹⁵⁾"고 하였고, 丹波는 "馬氏가 '陰氣는 營氣이고 陽氣는 衛氣니 下文도 마찬가지다.'고 하였는데, 馬氏의 注解가 옳지 않은 것 같다.¹⁶⁾"고 하였고, 《譯解》에는 "獨行은 비록 이미 拔鍼하였으나, 그 뒤에 반응이 있음을 形容한 것이다. 上述한 鍼을 놓자마자 바로 반응이 있는相逢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鍼을 이미 뽑은 뒤에 반응이 있는 것이므로 獨行이라 말한 것이다.¹⁷⁾"고 하였다.

[3] 數刺乃知 何氣使然 此人之多陰而少陽 其氣沈而氣往難 故數刺乃知也:

楊《語譯》에는 "知는 病이 낫는 것이니, 그 사

13) 楊: 陰陽和平之人은 以其氣和故로 鍼入即氣應相逢者也라 ●馬: 此는 承上文하야 而言受鍼之氣가 有與鍼相逢者는 以其氣之出速而相逢也라 正以此人者는 陰陽各經이 相爲調和而血氣淖澤故耳라 ○景岳: 相逢者는 鍼入에 氣即至니 言其應之速也라 ○張: 徐振公이 曰此는 言陰陽和平之人은 血氣淖澤滑利 故로 氣出疾而與鍼相逢也라하니라 倪仲玉이 曰調陰陽之氣皆應于鍼이라하니라

14) 楊: 多陰少陽之人은 陰氣深而內藏 故로 出鍼後에 氣獨行也라 ○景岳: 陰性遲緩하고 其氣內藏 故로 陰多於陽者는 其鍼已出이어늘 氣乃隨後而獨行也라 ●張: 徐振公이 曰此는 言多陰之人은 鍼已出而陰氣獨行也라 其陰氣多而陽氣少者는 陰氣沈而陽氣浮하야 陰陽之相離也라 故로 鍼已出則微陽之氣는 隨鍼外泄하고 陰氣는 獨行于內하니 此는 陰陽不和하야 不能交相廝守하야 而微陽之易脫也라하니라
15) 馬: 此는 言有鍼已出而氣獨行者는 正以陰氣多而內藏 故로 鍼雖出이나 而氣는 乃隨後以獨行也라 陰氣者는 營氣也요 陽氣者는 衛氣也니 下文同이라
16) 丹波: 馬云陰氣者는 營氣也요 陽氣者는 衛氣也니 下文同이라하니 馬注恐非라
17) 譯解: 獨行은 是形容雖已出鍼이나 但仍有反應의 意思라 因和上述鍼下立即產生反應의相逢來對比면 這裏는 鍼已取出而仍有反應이니 所以稱爲獨行이라

림이 陰이 많고 陽이 적어 氣가 宣發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 刺鍼해야 비로소 病이 낮게 됨을 안다는 것이다.¹⁸⁾”고 하였고, 馬·景岳張은 “이것도 또한 陰이 막혔기 때문에 氣의 왕래가 어렵게 된 것이다. 往은 이른다는 뜻이다. 上節과 비교하면 이것이 더욱 심하게 막힌 것이다.¹⁹⁾”고 하였다.

[4] 鍼入而氣逆者 何氣使然 其氣逆與其數刺 病益甚者 非陰陽之氣浮沈之勢也 此皆粗之所敗 上之所失 其形氣無過焉:

楊馬景岳張은 “이것은 鍼이 들어가면 氣가 逆上하는 것은 곧 醫師가 刺鍼法을 잘못된 것임을 말한 것이다. 鍼이 들어가면 氣가 逆上하는 것과 여러 번 刺鍼하여 病이 더욱甚해지는 경우는 陰氣와 陽氣가 浮沈하는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營氣는 沈下하는 것을 주관하고, 衛氣는 浮上함을 주관하므로 衛氣를 刺鍼할 때는 알기 刺鍼하여야 하고, 營氣를 刺鍼할 때에는 깊이 刺鍼해야 하거늘, 이제 鍼이 들어가면 氣가 逆上하는 것은 다만 알기 刺鍼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깊이 刺鍼하고, 깊이 刺鍼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알기 刺鍼했기 때문에 鍼이 들어가면 氣가 逆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鍼을 사용하는 자는 다들 그 形氣를 살펴서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²⁰⁾”고 하였고, 黃은 “粗之所敗와 上之所失은 粗

工이 손상시킨 것이고, 上工이 실수한 것이다.²¹⁾”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1. ‘其陰氣多而陽氣少’에 대하여 《語譯》과 《校釋》에서는 《甲乙經》을 근거로 ‘其陰多而陽少’로 고쳐야 上下節의 重陽之人, 人之多陰而少陽 등과 같이 陰多陽少之人을 가리키게 된다고 했는데, 原文대로 하여도 文意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체질의 陰陽多少로 보는 것이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므로 《語譯》 등처럼 ‘其陰多而陽少’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에 대하여 《太素》에는 ‘陰氣沈而陽氣浮 沈者藏’으로, 《張馬合本》에는 ‘陰氣沈而陽氣浮 沈者內藏’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校釋》에는 ‘陰氣沈而陽氣浮沈者內藏’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本節은 陰이 많고 陽이 적은 자에게 일어나는 刺鍼反應을 설명하는 것으로 陰氣는 가라앉고 陽氣는 떠오른다는

之浮沈이오 非是陰陽形氣之過也라 ●馬: 此는 言有鍼入而氣逆者는 乃醫工之失其鍼法也라 凡鍼入而氣逆과 與數刺而病益甚은 非陰陽之氣有浮沈之勢也라 特以營氣主沈하고 衛氣主浮故로 刺衛當淺하고 刺營當深이어늘 今鍼入而氣逆者는 特以宜淺而反深之하고 宜深而反淺之하니 所以鍼入而氣逆也라 故로 凡用鍼者는 皆當視其形氣而弗使過焉可也라 ○景岳: 逆從弗失이면 何至氣逆이며 補寫得宜면 何以病益甚이리오 凡若此者는 乃醫之所敗所失이오 非陰陽表裏形氣之過也라 ○張: 徐振公이 曰重陽之人은 其神易動하고 其氣易往하여 神氣之易散也라 多陰之人은 氣隨鍼出하여 微陽之易脫也라 陰陽有離有合하고 氣之有浮有沈하니 粗工이 不知浮沈離合之道而失之하여 以致數刺而病益甚也라 夫五音之形은 陰氣多而陽氣少하고 左右太少之形은 陽氣多而陰氣少 故로 善用鍼者는 調其陰陽而使形氣之無過焉이라하니라 仇汝霖이 曰神氣者는 五藏之神氣也라 重陽之人을 使神氣外弛면 則愈亡其陰矣라 多陰少陽之人을 使陽氣隨鍼而出이면 則愈亡其陽矣라 此는 皆粗工之所敗요 工之所失也라하니라

21) 黃: 粗之所敗와 上之所失은 粗工之所敗요 上工之所失也라

18) 楊: 知者는 病愈也니 其人이 陰多陽少하야 其氣難宣 故로 數刺라야 方愈也라 ○語譯: 知는 病愈라

19) 馬: 此는 言人有數刺而始知者는 以其陰氣多而沈也니 蓋比上節之沈이면 則又沈之甚矣라 ●景岳: 此도 亦陰滯故로 氣住爲難이라 往은 至也라 較之上節이면 則此爲更甚耳라 ○張: 徐振公이 曰此는 言陰中有陽之人이 數刺而始知也라 陰中有陽者는 多陰而少陽하야 其氣沈而難于往來 故로 數刺乃知니 此는 陰陽廝守于內也라 二節은 言多陰少陽之人에 有陰陽之相離者하고 有相守者니 陰陽離合之道라 行鍼者는 不可不知라하니라 仇汝霖이 曰多陰少陽 故로 陰陽不合이요 陰中有陽 故로 陰陽相和니 蓋陽生于陰也라하니라

20) 楊: 刺之令人氣逆하고 又刺之病甚者는 皆是醫士不知氣

일반적인 규칙을 말하고 그 뒤에 內藏되기 때문에 氣의 운행이 늦어진다고 하였는데, 만약 '沈'字를 더 삽입하면 陰이 많아서 沈하는 者는 內藏되기 때문에 氣의 운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文意가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張馬合本》과 《校釋》의 주장처럼 '沈'字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較註에 對한 考察)

1. '相逢'에 對하여 諸家들이 자세히 注解하지 않았으나, 文意상으로 볼 때 刺鍼한 뒤에 곧바로 得氣가 되어 鍼과 氣가 서로 감응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陰氣와 陽氣에 대하여 馬는 營氣와 衛氣로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丹波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注釋도 營衛氣로 본 者가 없으며, 만약 營氣나 衛氣로 해석한다면 體表와 體內를 운행하는 포괄적인 陽氣와 陰氣의 의미를 축소하게 되고 아울러 陰多者와 陽多者 사이에는 氣가 行하는 깊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得氣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원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으므로 馬蔣의 의견은 偏狹되었다고 본다.

3. '獨行'에 대하여 《譯解》에서 拔鍼한 뒤에 반응이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 나온 相逢과 반대로 刺鍼하였을 때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鍼을 뽑은 뒤에 반응이 더디게 오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본다.

4. '數刺乃知'의 '知'에 대하여 楊氏 등은 病이 낫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여러 번 刺鍼하여야 氣가 반응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앞에 논한 氣感의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물론 得氣하면 病이 호전되어 낫게되므로 楊과 《語譯》에서 이렇게 病이 낫는 것으로 풀이하였지만, 病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氣感의 반응 여부를 논한 것이므로 楊 등의 注解만으로는 부족

함이 있다고 본다.

【直譯】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그 氣가 鍼과 함께 相逢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陰陽이 調和되어 血氣가 潤澤하고 滑利하기 때문에 鍼이 들어가면 바로 氣感이 나타나 빠르게 相逢합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鍼이 이미 나왔으나 氣가 홀로 行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기 때문에 陰氣는 沈하고 陽氣는 浮하는 것이 陰多하여 안으로 潛藏되므로 鍼이 이미 나왔으나 氣가 그 뒤를 따라 떠오르기 때문에 늦게 홀로 行하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刺鍼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陰이 많고 陽이 적어서 그 氣가 沈潛하여 氣가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刺鍼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鍼이 들어간 뒤에 氣가 上逆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氣가 上逆함과 여러 번 刺鍼하였는데 病이 더욱甚해지는 것은 陰陽氣의 多少와 氣의 浮沈作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모두 어리석은 의사가 손상을 입힌 것이거나 의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 形氣에는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IV. 意 譯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기를 “내가 九鍼의 法을 선생님께 듣고 백성들에게 이를 行하였으나, 백성

들의 陰陽氣血이 각기 偏盛하기도 하고 偏衰하기도 하여 刺鍼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神氣가 쉽게 움직여서 氣의 반응이 鍼보다 빨리 오고, 어떤 경우에는 刺鍼한 뒤에 곧바로 氣의 반응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鍼을 뽑고 난 뒤에 반응이 늦게 단독으로 오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刺鍼한 뒤에야 비로소 반응이 오거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鍼을 놓은 뒤에 氣가 上逆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 刺鍼여도 病이 더욱 甚해져서 이러한 여섯 가지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다.

岐伯이 “陽이 偏盛한 重陽之人은 神氣가 쉽게 움직여서 刺鍼의 반응이 쉽게 나타납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어떤 사람을 重陽之人이라 합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重陽之人은 陽氣가 偏盛하여 기운이 위로 熾盛하고 卑屈한 마음이 없으며, 말을 빨리 하기를 좋아하며, 발을 높이 들면서 걷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心臟과 肺臟의 氣運이 다른 사람보다 有餘하고 陽氣의 운행이 매끄럽고 盛하여 氣運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神氣가 쉽게 움직여 氣感이 빨리 옵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重陽之人인데도 神氣가 빨리 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이 사람은 앞의 重陽之人보다 약간의 陰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약간의 陰이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陽氣가 많은 사람은 기뻐하길 잘하고, 陰氣가 많은 사람은 성내길 잘하는데, 이 사람은 陰氣가 있어 자주 성내는 반면 陽氣로 인해 쉽게 풀어지므로 약간의 陰氣가 있다고 한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陰氣와 陽氣가 偏盛偏衰하여 氣運의

離合出入이 어렵기 때문에 神氣가 앞의 重陽之人처럼 빨리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氣의 반응이 刺鍼하자마자 곧바로 느껴지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이 사람은 陰陽이 和平하고 調和로워서 血氣가 潤澤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鍼을 놓은 뒤에 반응이 빨리 나타나 鍼과 氣가 동시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鍼을 뽑은 뒤에 氣의 반응이 뒤늦게 오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이 사람은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사람이라서 陰氣는 性質이 沈하고 陽氣는 성질이 浮越하는데, 陰氣가 많아 안에서 陽氣를 잡고 있음으로 鍼을 뽑은 뒤에야 陽氣가 그 뒤를 따라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혼자 오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여러 번 刺鍼하여야 겨우 反應하거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氣때문에 그런 것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이 사람은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사람인데, 氣運이 가라앉아 行하므로 氣의 反應이 이르기 어려우므로 여러 번 刺鍼하여야 反應하거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鍼을 놓은 뒤에 氣의 반응이 불량하게 上逆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岐伯이 “鍼을 놓은 뒤에 氣가 上逆하는 것과 여러 번 刺鍼하였는데 病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陰陽의 偏盛偏衰로 인한 것도 아니고 氣機의 浮越하고 沈藏하는 작용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능력이 부족한 醫師가 환자를 治療하다가 잘못하여 손상을 입혔거나 失手한 것이니 患者의 形氣盛衰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V. 結 語

《靈樞行鍼篇》에 대하여 各家註를 比較 考察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節에서 ‘或神動而氣先鍼行’은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치고, ‘或鍼已出’은 ‘或鍼已出而’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합당하며, ‘發鍼은 下鍼 즉 刺鍼의 뜻으로 보고, ‘劇’은 病이 嚴重해지고 甚해지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二節에서 ‘往’은 刺鍼하여 氣가 이른다는 뜻으로 보고, ‘熇熇’은 焔이 학학이며 陽熱이 盛하여 氣가 上행하고 熾盛하다는 뜻으로, ‘高高’는 ‘蒿蒿’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卑屈한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揚’은 ‘散’의 의미보다 浮越하다는 뜻으로, ‘頗’는 조금이나 약간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三節에서 ‘其陰氣多而陽氣少’는 體質의 陰陽多少의 뜻하므로 ‘其陰多而陽少’로 고치고,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은 원문에 ‘沈’자를 넣어야 뜻이 더욱 명확해지므로 ‘陰氣沈而陽氣浮 沈者內藏’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며, ‘相逢’은 刺鍼한 뒤에 곧바로 得氣가 되어 鍼과 氣가 서로 감응한다는 뜻으로, ‘知’字는 刺鍼한 뒤에 氣感의 반응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參 考 文 獻

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2.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4.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5. 裊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7.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8. 王永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9.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0. 楊上善 著 籙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年度未詳.
11.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3. 張介賓, 類經簡字本, 成輔社, 서울, 1982.
14.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5. 陣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1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7.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18. 皇甫謐著 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9.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20. 洪元植,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研究會, 서울, 1994.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2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서울.

1994.

參 考 辭 典

1. 姜憲鎮, 進明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廓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1.
3.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4.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5.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7. 車柱環 外,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KYOBO
교보문고